

#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의 매개효과

정 점 숙<sup>1)</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질적인 간호서비스 제공능력을 가진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으며(조미영, 2010), 특히 임상실습교육은 간호지식을 실무에서 실제로 통합하고 적용하여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살아있는 지식을 창조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간호학생은 이러한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간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실무 능력 즉,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동기와 태도의 조합인 임상수행능력을 갖추게 된다(이규은, 하나선, 길숙영, 2000). 이러한 임상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임상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과 실습기관과의 협력적 임상실습 교육환경의 구축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역동적인 임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실습의 주체인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이 중요하다.

자기주도성은 학습자가 교수의 도움에 상관없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주도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목표 설정,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인적, 물적자원을 밝혀내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 적용시키며 그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모든 과정 또는 이와 관련된 인성적 특성을 의미한다(Candy, 1991). 임상실습 교육에서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성은 임상실습 능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간호학생이 자신의 실습 요구를 명확히 하고 목적을 세워서 실습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Levett-Jones, 2005).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계를 조사한 양진주와 박민영(2004)의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과 임상수행능력간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양진주(2009)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더 높았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성은 이들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2009)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의미있는 관련성을 지닌다고 하였으며, 오원옥(2002) 연구결과에서는 자기주도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미혜(2010)의 연구에서는 임상수행 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강현옥(2009)의 연구에서도 임상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성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임상수행능력이 매개변수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간호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실습요구를 파악하고 목적을 설정하는 등 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실습에 임한다면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향상된 임상수행능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세 변수와 관련하여 단

주요어 : 자기주도성,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1) 진주보건대학교 간호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nolza77@hotmail.com)

투고일: 2011년 11월 2일 심사완료일: 2012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9일

선적인 관계나 상대적 영향력만을 보는 것에서 그쳤고 그 사이를 매개하는 변수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임상수행능력의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추후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 환경 구축과 임상실습 지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계에서 임상수행능력의 매개효과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임상수행능력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2011년 4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G지역에 소재한 J대학 3학년 간호학생으로 총 22주의 임상실습을 마치는 291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연구 도구

#### ● 자기주도성

본 연구에서는 Guglielmino 등 (1987)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DLRS) 도구를 유귀옥(1997)이 번안하고 문체점이 제기되는 문항과 중복되는 항목을 요인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면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거쳐 수정한 도구로서 6개의 하위영역과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영역으로 실

습에 대한 애착 8문항, 실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8문항, 도전에 대한 개방성 8문항, 실습에 대한 호기심 4문항, 자기이해 2문항, 실습에 대한 책임 수용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유귀옥(199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0$  으로 나타났다.

#### ● 임상수행능력

본 연구에서는 이원희 등(1991)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기초로 최미숙(2005)이 수정·보완한 5개의 영역 총 45문항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에 적합한지 간호학 교수 1인과 임상실습 전담교수 1인에게 사전 검토 후 사용하였다.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개의 하위영역으로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잘 한다' 5점에서 '매우 못 한다' 1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미숙(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6$ 으로 나타났다.

#### ● 임상실습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문영순(2000)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김영희(2009)가 수정·보완한 5개의 하위영역 총 23문항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에 적합한지 간호학 교수 1인과 임상실습 전담교수 1인에게 사전 검토 후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 실습내용 7문항, 실습지도 5문항, 실습환경 5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가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김영희(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9$  로 나타났다.

###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임상실습 시작일이 8주 간격으로 반별로 다르게 실시되어 종료일인 2011년 4월 25일에 137명, 6월 20일에 174명 각각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방법은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질문지는 22주의 임상실습 종료하는 날 실습을 마친 후 작성하도록 하고 바로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

지 중 미응답이나 불명확하게 기재된 20부를 제외한 29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 자기주도성,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차이는 t-test, ANOVA로 시행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자기주도성,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으로 분석하였다.
- 임상수행능력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조합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절차와 Sobel test을 이용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Table 1>, 간호과 선택동기는 취업이 107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주변의 권유 84명(28.9%), 간호사에 대한 호감 72명(24.7%)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174명(59.8%)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100명(34.4%), 불만족한다 17명(5.8%)으로, 94.2%의 대상자가 간호과 전공에 대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학업성적은 3.0점이상에서 3.9점이하가 214명(73.5%)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점이상에서 2.9점이하 55명(18.9%), 4.0점이상 5명(1.7%)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시 자가 학습정도는 보통이다가 199명(68.4%)으로 가장 높았고, 잘하였다 87명(29.9%), 전혀 안하였다 5명(1.7%)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적응도는 잘 적응하였다가 235명(80.7%)으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적응하였다 48명(16.5%), 적응하지 못하였다 8명(2.7%)순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성의 전체 평균평점은 3.71(±.40)점이었으며, 자기주도성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은 임상실습에 대한 애착으로 평균평점은 3.89(±.50)점,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은 임상실습에 대한 호기심으로 평균평점은 3.60(±.60)점이였다.

임상수행능력의 전체 평균평점은 3.77(±.46)점이었으며, 임상수행능력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은 전문직 발전으로 평균평점은 3.84(±.50)점,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은 간호과정으로 평균평점은 3.66(±.48)점이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의 전체 평균평점은 3.73(±.46)점이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은 실습지도로 평균평점은 4.14(±.60)점,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은 실습환경으로 3.53(±.62)점이였다<Table 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전공만족도(F=11.97, p<.001), 자가학습정도(F=22.45, p<.001), 임상실습 적응도(F=16.09,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Duncan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임상실습 적응도에서 '잘 적응하였다'라고 응답한 대상자(3.78±.40)가 '대체로 적응하였다(3.44±.29)', '적응하지 못하였다(3.78±.40)'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전공만족도와 자가학습정도는 분산분석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집단 간 일 대일로 비교했을 때에는 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F=9.82, p<.001), 자가학습정도(F=21.55, p<.001), 임상실습 적응도(F=18.7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자가학습정도에서 '잘하였다(4.01±.43)', '보통이다(3.68±.44)', '전혀 안하였다(3.22±.23)'라고 응답한 대상자별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가학습을 '잘하였다' 대상자가 임상수행능력이 가장 높았다. 임상실습 적응도는 '잘 적응하였다'라고 응답한 대상자(3.85±.44)가 '대체로 적응하였다(3.47±.37)', '적응하지 못하였다(3.38±.73)'라고 응답한 대상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잘 적응하였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임상수행능력이 가장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분산분석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검정결과에서는 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공만족도(F=16.81, p<.001), 자가학습정도(F=9.57, p<.001), 임상실습 적응도(F=17.1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전공만족도에서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3.85±.44)가 '보통이다(3.57±.39)', '불만족한다(3.44±.62)'라고 응답한 대상자 간에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상실습 적응도는 '잘 적응하였다(3.80±.45)', '대체로 적응하였다(3.50±.30)', '적응하지 못하였다(3.13±.60)'라고 응답한 대상자별로 각각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실습 적응을 '잘 적응하였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임상실습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자가학습정도는 분산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집단 간 일 대 일로 비교했을 때는 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간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비교는 <Table 3>과 같다. 임상실

<Table 1> Self-directedness, clinical competen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N=291)

Characteristics	Category	n(%)	self-directedness		clinical competen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24(8.2)	3.71±.39	0.33	3.77±.47	0.58	3.72±.47	0.65
	Female	267(91.8)	3.74±.46	(.744)	3.83±.43	(.559)	3.79±.37	(.516)
Motivation on choice nursing	Good impression	72(24.7)	3.76±.44	1.39	3.78±.50	0.33	3.74±.48	1.90
	Fitness	23(7.9)	3.80±.42	(.238)	3.86±.44	(.861)	3.94±.43	(.110)
	Inducement	84(28.9)	3.69±.36		3.76±.43		3.75±.37	
	School grade	5(1.7)	3.39±.48		3.64±.39		3.69±.45	
	Employment	107(36.8)	3.70±.39		3.76±.48		3.66±.50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sup>(a)</sup>	174(59.8)	3.80±.39	11.97	3.86±.46	9.82	3.85±.44	16.81
	Moderate <sup>(b)</sup>	100(34.4)	3.56±.39	(.000)	3.61±.42	(<.001)	3.57±.39	(<.001)
	Unsatisfied <sup>(c)</sup>	17(5.8)	3.73±.33		3.83±.49		3.44±.62	a>bc
Grade	2.0 - 2.9	55(18.9)	3.64±.41	1.69	3.69±.44	1.04	3.69±.40	0.80
	3.0 - 3.9	214(73.5)	3.74±.39	(.186)	3.80±.46	(.354)	3.73±.47	(.450)
	≥ 4.0	22(7.6)	3.66±.42		3.76±.56		3.83±.50	
Self-study	Good <sup>(a)</sup>	87(29.9)	3.93±.39	22.45	4.01±.43	21.55	3.87±.50	9.57
	Moderate <sup>(b)</sup>	199(68.4)	3.61±.36	(<.001)	3.68±.44	(<.001)	3.66±.42	(<.001)
	No <sup>(c)</sup>	5(1.7)	3.74±.42		3.22±.23	a>b>c	3.43±.38	
Adaptation in clinical practice	Adapted <sup>(a)</sup>	235(80.7)	3.78±.40	16.09	3.85±.44	18.72	3.80±.45	17.15
	Moderate <sup>(b)</sup>	48(16.5)	3.44±.29	(<.001)	3.47±.37	(<.001)	3.50±.30	(<.001)
	Unadapted <sup>(c)</sup>	8(2.7)	3.54±.35	a>bc	3.38±.73	a>bc	3.13±.60	a>b>c

<Table 2> Mean score for self-directedness and clinical competen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291)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Self-directedness	Love of practice	3.89±.50
	Self-confidence as a learner	3.63±.45
	Open to challenge	3.67±.44
	Curiosity about practice	3.60±.60
	Self-understanding	3.83±.60
	Responsibility for one's own practice	3.64±.67
	Total	3.71±.40
Clinical competency	Nursing process	3.66±.48
	Nursing skill	3.80±.52
	Education/Cooperation	3.79±.56
	Interpersonal relation/Communication	3.81±.57
	Professional development	3.84±.50
	Total	3.77±.46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Practice content	3.58±.45
	Practice guidance	4.14±.60
	Practice environment	3.53±.62
	Practice time	3.74±.70
	Practice evaluation	3.71±.70
	Total	3.73±.46

&lt;Table 3&gt; Correlations self-directedness and clinical competen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291)

Categories	Self-directedness	Clinical competency
Clinical competency	.713(p<.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409(p<.001)	.537(p<.001)

&lt;Table 4&gt;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n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291)

Predictors	$\beta^*$	SD*	$\beta^†$	t( $\rho$ )	Adjusted R <sup>2</sup>	F( $\rho$ )
1. SD→CC	.825	.048	.713	17.28(<.001)	.506	298.58(<.001)
2. SD→CPS	.469	.062	.409	7.62(<.001)	.164	58.08(<.001)
3. Step 1(CC→CPS)	.532	.049	.537	10.81(<.001)		
Step 2(SD→CPS)	.062	.081	.054	0.76(.448)	.285	58.67(<.001)

SD: self-directedness, CC: clinical competency, CP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eta^*$  Unstandardized Coefficients ; SD\* Standard Deviation ;  $\beta^†$  Standardized Coefficients

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임상수행능력( $r=.713, p<.001$ ), 임상실습 만족도( $r=.409,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 만족도( $r=.537,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임상수행능력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임상수행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조합에 따른 매개효과검증 절차와 Sobel test을 이용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은 세 단계의 회귀분석으로 이루어지며,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회귀분석하는 것으로 회귀식 Y (임상수행능력) = 상수 + 비표준화계수  $\beta$ (자기주도성)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대하여 유의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회귀분석하는데 회귀식 Y (임상실습 만족도) = 상수 + 비표준화계수  $\beta$ (자기주도성)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3단계 회귀방정식은 독립변수인 자기주도성과 매개변수인 임상수행능력을 동시에 종속변수인 임상실습 만족도에 회귀하는 것으로 회귀식 Y (임상실습 만족도) = 상수 + 비표준화계수  $\beta$ (자기주도성) + 비표준화계수  $\beta$ (임상수행능력)로 이 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되, 3단계의 독립변수의 효과가 2단계 회귀분석보다 감소되어야 한다. 또한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되는데, 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부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도 유의한 경우를 말한다.

자기주도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임상수행능력을 매개변수, 임상실습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Table 4>과 같다. Table 4에서 보여지듯이 1단계의 표준회귀계수  $\beta$ 값이 .713( $p<.001$ ), 2단계의 표준회귀계수  $\beta$ 값이 .409( $p<.001$ )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1단계와 2단계의 매개효과 조건을 충족시켰다.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임상수행능력의 표준회귀계수  $\beta$ 값은 .537( $p<.001$ )이며, 매개변수인 임상수행능력을 투입하였을 때 자기주도성의 표준회귀계수  $\beta$ 값은 .054( $p=.448$ )로 나타나 자기주도성의 영향력은 임상수행능력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였을 때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임상수행능력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의 자기주도성의 표준회귀계수  $\beta$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임상수행능력은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직접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임상수행능력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임상수행능력을 매개로 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는 <Figure 1>과 같다. 또한 Sobel test결과에서도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001$ )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영향(.49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주도성은 임상수행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에 정적영향(.43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임상수

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임상수행능력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3.71점으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김영희, 2009; 조학순, 2007; 배영숙 등, 2005; 양진주, 박미영, 2004; 고정은, 2003; 오원옥, 2002). 이는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변인들이 다양하여 단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본 대학의 경우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실습태도 평가부분에 있어 실습 중 학생의 자기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실습태도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하고 지도하고 있어 이를 통한 임상실습 교육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Valle et al(2002)에 의하면 임상실습에 자기주도적인 학생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자기주도적인 전략은 학생의 실습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교수는 간호학생이 실습의 주체임을 인식시키고 주도성과 배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학습에 대한 촉진자로서(O'Shea, 2003) 지속적인 격려를 통해 점차적으로 간호학생 스스로 실습교육의 목표를 자기주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김영희, 2010; Levett-Jones, 2005). 또한 자기주도성 영역 중 가장 높은 영역은 임상실습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학순(2007), 김영희(2009)의 연구에서 실습에 대한 애착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전문인으로서의 뚜렷한 정체감 확립과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애착을 가지고 실습에 임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은 실습에 대한 호기심 영역으로, 조학순(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학생이 실습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가질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과 다른 결과로, 실습에 대한 호기심 영역 문항 중 새로운 일을 벌이기를 좋아하고 독특한 방법을 생각해낸다는 항목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간호학생들이 임상현장에서 실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안전이며, 모든 간호활동은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행해져야 함을 인식하고 임상실습에 임하기 때문에 전체 실습에 대한 호기심 영역이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3.77점으로 선행연구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강현옥, 2009; 성미혜, 2010; 양진주, 2009; 최은희, 2009),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은 22주의 임상실습을 마친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로 다른 연구대상자들에 비해 임상실습 기간이 길어 임상수행능력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임상실습 교육방법 등에 의해서도 차이를 나

타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하위영역 중 전문직 발전과 관련된 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간호과정으로 강현옥(2009), 조학순(2005), 최미숙(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최근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대상자가 간호학생의 직접적 간호 처치를 꺼려하고, 또한 법적인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간호제공이 한계가 있고 엄격해져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학생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지고(강현옥, 2009) 관찰위주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론적으로 배운 간호과정을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임상현장의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임상실습 교육에 있어서 대학과 실습기관은 간호과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3.73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들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강윤숙 등, 2006; 강현옥, 2009; 김은하, 오윤희, 2000; 구혜자, 2008; 이순희 등, 2004; 최명선, 2005). 만족도는 인간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것이 다를 것이며 임상실습의 교육방법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임상실습 만족도 하위영역 중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4.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현옥(2009)의 3.1점, 구혜자(2008)의 2.97점보다 비교적 높은 연구결과로, 본 대학에서는 실습전담교수 제도를 활용하여 과목별 전임교수와 실습전담교수가 함께 이론과 실무가 연계된 체계적인 임상실습 지도에 만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실습환경이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는데, 실습환경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영역으로 나타난 구혜자(2008)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로 본 연구대상자가 속한 대학이 부속병원을 갖지 않는 관계로 실습협약을 통해 3차 교육병원에서 주로 임상실습을 시행하고 있어 부속병원을 가진 타 대학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실습을 하게 되는 점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실습환경에 대한 문항 중 ‘한 장소에서 실습하는 학생 수는 적당하였다’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심화된 간호사 부족현상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간호교육기관의 신설과 입학정원 증원으로 간호학생이 14,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대한간호협회, 2009)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실습할 수 있는 교육병원은 한정되어 있어 전공과목 실습병동의 경우 적정 실습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질적인 실습교육의 저하로 인한 불만족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실습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측은 질적인 주요전공과목별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실습지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실습기관과 대학 간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를 연구한 양진주, 박미영(2004),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간의 관계를 연구한 김영희(2009),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간의 관계를 연구한 성미혜(2010)의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학생일수록 실습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실습에 있어 주체가 자신임을 인지하고 주도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실습에 임하게 되며, 학생 스스로가 배우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상현장에서 현장지도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실습활동을 함으로써 임상수행능력이 증진되어 결국 임상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감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와 의 관계에 있어서 임상수행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임상수행능력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자기주도성,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세 변수와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들 연구는 단순한 변수들 간의 관계나 상대적 영향력만을 알아보는 것에서 그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세 변수간의 관계에서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고, 임상수행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임상수행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상실습교육과정에 있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방안을 제공할 때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임상수행능력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

이다. 연구대상은 G지역의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총22주의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학생 291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은 2011년 4월 25일, 6월 20일 각각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귀옥(199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임상수행능력은 최미숙(2005)이 수정·보완한 도구, 임상실습 만족도는 김영희(2009)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program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분석,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및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조합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절차와 Sobel test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3.71점, 임상수행능력 3.77점, 임상실습 만족도 3.73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임상수행능력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자기주도성과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고 매개변수로서 임상수행능력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그 방법 중 단계별 임상수행능력 증진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효과분석 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운숙, 조 희, 노영숙, 부은희, 안금희(2006). 학교-병원 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임상실무수행능력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1), 13-20.
- 강현옥(2009).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구.
- 고정은(2003).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1(2), 97-106.
- 구혜자(2008). 간호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2), 205-215.
- 김영희(2006). 간호 대학생의 기본간호 임상실습에 관한 자율성, 교수효율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기본간호학회지*, 13(1), 6-14.

- 김영희(2009).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자  
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관계. *기본  
간호학회지*, 16(3), 307-315.
- 김영희(2010).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의 동영상 사전학습에 대  
한 간호학생의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성의 효과. *기본간호  
학회지*, 17(2), 240-248.
- 김은하, 오윤희(2000).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 186-198.
- 대한간호협회(2009). *한국 간호교육 및 간호사 현황*. 미출간정  
책자료.
- 문영순(2000). *간호학생이 평가한 수술실 실습교육의 교수 효  
율성과 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서울.
- 배영숙, 이숙희, 김미희, 선광순(2005). 문제중심학습이 자기주  
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  
회지*, 11(2), 184-190.
- 성미혜(2010). 간호대학생의 학제 간 성취동기,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련성 비교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7(1), 90-98.
- 양진주, 박미영(2004).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0(2), 271-277.
- 양진주(2009).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 159-165.
- 오원옥(2002).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영향요  
인. *대한간호학회지*, 32(5), 684-693.
- 유귀옥(1997). *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인구학적 및 사회  
심리학적 변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
- 이규은, 하나선, 김숙영(2000). 간호대학생의 자기표출과 임상  
수행능력간의 관계. *간호학회지*, 30(3), 571-583.
-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2004). 간호학생의 이미지와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행정학회지*, 10(2), 219-231.
- 이원희, 김조자, 유지수, 허혜경, 김경숙, 임성민(1990). 간호대  
학생의 임상수행 능력 측정 도구 개발 연구. *간호학논집*,  
13, 17-27.
- 조미영(2010). 간호학 실습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현황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2), 239-248.
- 조학순(2005).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2), 222-231.
- 조학순(2007).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주도학습  
및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2(2), 57-72.
- 최미숙(2005).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  
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최은희(2009).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의 관  
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1), 15-21.
- 하나선, 최명숙(2004). 간호학생의 리더십 유형과 자아 존중  
감,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계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1(1),  
1-9.
- Barrett, C., & Myrick, F. (1998).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2),  
364-371.
- Guglielmino, P. J., Guglielmino, L. M., & Long, H. B. (1987).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erformance in the  
workplace: implications for business,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16(3), 303-317.
- Levett-Jones, T. L. (2005). Self-directed learn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or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25(5), 363-368.
- Lunyk-Child, Crooks, D., Ellis, P. J., Oforu, C., O'Mara, L.,  
& Rideout, E. (2001). Self-directed learning: Faculty and  
student perceptions. *Journal Nurse Education*, 40(3),  
116-123.
- O'Shea, E. (2003). Self-dicted learning in nurse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3(1), 62-70.
- Valle, A., Cabanach, R. G., Núñez, J. C., González-Pienda, J.,  
Rodríguez, S., & Piñeiro, I. (2003). Mutiple goals,  
motivation and academic 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1), 71-87.



#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Jung, Jeom Suk<sup>1)</sup>

1)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clinical compet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their clinical competence between self-directedn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91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on April 25 and June 20, 2011. **Results:** There were statistically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self-directedness, clinical compet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was found to complete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n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self-directedness to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have no direct effect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t has an indirect effect by clinical competency.

**Key words :** Directive, Clinical Competence, Satisfac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ung, Jeom Suk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1142, Sangbongsedong, Jinju-city, Gyeongnam 660-775, Korea  
Tel: 82-55-740-1826 Fax: 82-55-743-3010 E-mail: nolza77@hotmail.com